

미국 마감 상황

2008.11.03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31일 뉴욕금융시장은 경기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회복세가 완연해지는 모습에 주가가 상승. 장 후반 주말을 앞두고 경계심리가 작용하여 상승폭 축소.

9월 개인소득은 전월대비 0.2% 증가한 반면 개인소비지출(PEC)은 0.3% 감소, 4년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경기후퇴 우려를 증폭. 개인저축은 1.3% 증가.

3개월만기 리보금리는 전일 3.19%보다 하락한 3.03%, 하루짜리 리보금리는 전일 0.73%보다 내린 0.41%로 거래되며 5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. 신용경색이 완화하는 모습.

다우지수는 144.32p(1.57%) 오른 9,325.01로 마감. 이번달 14.1% 하락하였으나 이번주 11.3% 상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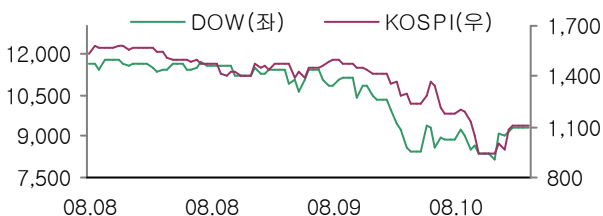
JP모간 9.6%, بانک 오브 아메리카 6.1%, 씨티 4.1% 오르며 금융주들이 강세. GM은 미 재무부의 구제금융 여부가 불확실해지며 4.6% 하락.

S&P500지수는 14.67p(1.54%) 오르며 968.76,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.43p(1.32%)오르며 1,720.95에 마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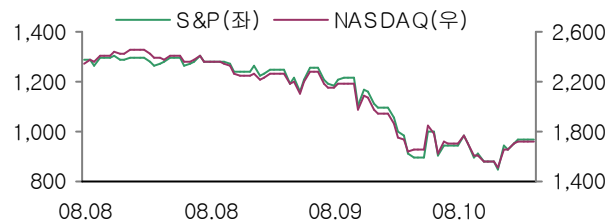
뉴욕유가는 경기후퇴로 인한 수요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막판 반등. 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는 전일대비 1.85달러(2.8%) 상승한 배럴당 67.81달러에 거래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9,325.01	1.57	11.29	5.34	-13.90	-18.04	-31.27
S&P(좌)	968.75	1.54	10.49	3.00	-16.56	-23.56	-35.78
NASDAQ(우)	1,720.95	1.32	10.88	0.56	-16.84	-26.00	-38.42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